

1992년 2월 27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공청회

○ 일시: 1992년 2월 27일(목) 오전 10시 개의

○ 발언자:

- 요시다 다다오(吉田忠雄) 공술인(메이지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
- 미즈타 미노루(水田稔)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305262X00219920227&spkNum=61¤t=42>

○ 해제(개요 및 특징)

요시다 공술인은 한국인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에서 미국, 특히 캐나다를 본받을 것을 주장함. 이에 대해 미즈타 의원은 젊은 시절 자신이 겪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일본과 관련된 조선의 비극적인 역사를 회상하며, 요시다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함. 또한 요시다는 일본의 역사인식 전반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한국인 위안부 문제만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함.

○ 주요 내용 번역

▷ **요시다 공술인** “(전략) 다섯 번째로, 자리에 갖다 드린 자료는 한국인 **종군위안부**의 보상 문제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전쟁의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에게 몇몇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본계 사람들을 강제 수용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더 심하게 했습니다. 강제로 퇴거시켰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재산 등을 몰수해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는, 미국의 정책과 운동을 따랐습니다만, 전해드린 이것이 그 원본입니다. 공식적인 사과문입니다. 그 축소 사본을 드린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과거의 여러 옳지 못한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과거에 행한 월권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1인당 약 2만 달러가 넘는 보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인 **위안부** 문제, 일본의 치부입니다만, 저는 이것들을 조사한 뒤 특히 미국, 캐나다의 예를 배워서 몇몇한 태도를 취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 전쟁에 참가한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종군위안부**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상상컨대 당시 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엔화 혹은 군표(軍票)¹⁾였을 것입니다. 이 마음 여린 여성들은 고향에 남겨진 가족을

1) 군표(軍票) : 군용수표. 전지(戰地)나 점령지에서 군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

위해 돈을 저축했을지 모르지만, 일본의 패전으로 이 엔화는 전혀 손에 넣을 수 없게 되고 군표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성의를 다해 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중략)

▷ **미즈타 위원** “그럼 요시다 선생님, 처음 선생님의 자료를 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서울에서 자라, 전쟁 중 지금의 포항에서부터 상하이, 칭다오(靑島)에서 점령 하의 중국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19~20세로 젊었을 때였기에 직접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실제로 식민지 지배의 상황도 보아 왔지요. 그런 가운데, 이 **위안부**에 대한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에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중략)²⁾ 그래서 저는 한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모두, 역사교육의 문제도 포함하여 그런 전체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것만 다루셨지만, 그런 점에 대해 무언가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요시다 공술인** “방금 하신 질문에 대해 저는 거의 전면적으로 찬성합니다. 공명(共鳴)합니다. 조선반도를 방문하면, 저는 북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한국을 방문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조선반도를 무력으로 짓밟은 것은 일본뿐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마음의 고통을 일본인은 더더욱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비(閔妃) 암살에 관한 것을 쓰노다 후사코(角田房子) 씨의 저서를 통해 처음 알게되어 저도 매우 경악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는 여러 가지 큰 실패를 범했습니다. 독일인은 유대인 학살했고 이에 대해 성심성의껏 여러 방법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일본인 가운데 예컨대 한국 **중군위안부** 문제를 꺼내면, 이번엔 병사의 문제는 어떤지, 혹은 북조선은 어떤지, 혹은 타이완,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전부 포함하여 일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성심성의껏 하고 싶습니다. 우선 정부로서도, 이 **중군위안부**는 첫걸음입니다만, 사죄하고, 그리고 거액의 금액은 일본의 재정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캐나다가 성심성의껏 표시한 금액은 2만 달러였습니다. 그 금액으로 만약 1만 명이면 250억 엔입니다. 혹은 그 이상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확실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지금 바로 첫걸음만이라도, **중군위안부**만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일한기본조약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측에 역시 말해야 할 것은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조약에서 나오지 않은 문제, 저는 병사의 문제는 매우 미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중군위안부**만은 그 틀

하는 긴급 통화(通貨).

2) 미즈타 위원이 중간에 임진왜란, 을미사변 등 조선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언급함.

에서 벗어나 처리했으면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질문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저는 전적으로 동조합니다.”